

# 한국 야구, WBSC 세계랭킹 3위 유지



한국 야구가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랭킹 3위를 유지했다. WBSC는 18일(한국시간) 2018년 마지막 세계랭킹을 발표했다. 한국은 랭킹 포인트 4987을 얻어 3위에

일본 1위 · 미국 2위...대만 4위 · 쿠바 5위

프리미어12 출전국, 12위 이내 팀으로 결정

위를 지켰다.

한국은 10월 열린 23세 이하(U-23) 야구월드컵에서 4위에 올라 453점을 추가했다.

9월28일 세계랭킹에서 5245점으로 2위였던 일본은 23세 이하 야구월드컵 준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551점을 더해 1위를 탈환했다.

미국은 18세 이하(U-18) 아메리카 지역 예선에서 1위로 랭킹 포인트 50점을 더하는데 그치면서 일본에 1위를 내줬다.

대만은 3569점을 기록,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점프했다. 3516점을 얻은 쿠바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WBSC 세계랭킹을 바탕으로 프리미어 12 출전국이 결정된다. 내년 11월 개최되는 2019 프리미어 12는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해 치러진다.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쿠바,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이 12위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 여자 야구는 세계랭킹 8위로, 9월보다 한 계단 내려앉았다. 일본은 여자 야구에서도 세계랭킹 1위다.

소프트볼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23위로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 기성용 “뉴캐슬 오래 떠나게 돼 소속팀에 미안, 아시안컵 중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으로 장기간 뉴캐슬 유니타드를 떠나게 된 기성용이 소속팀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기성용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미러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안컵은 다음달 5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된다. 50년째 트로피가 없는 한국은 이번 대회를 승인을 풀 기회로 보고 있다. 기성용 역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시안컵 우승에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최종 명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성용은 합류가 확실시되는 선수로 분류된다.

기성용은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거의 6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늘 그랬듯 국가대표팀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 기성용이지만, 한 달 넘게 소속팀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시즌 중 팀을 떠나게 돼 미안한 마음”이라며 “우리가 준결승 결승에 간다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 같다. 결승은 2월1일에 열린다. 꽤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소속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 욕심을 부리



고 싶진 않다”면서 동료들을 신뢰하기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뉴캐슬은 23일 풀럼전 이후 기성용을 보내줘야 한다. 초반 어려움을 딛고 주전으로 도약한 기성용은 뉴캐슬의 중요한 자원이자, 영국 언론들은 뉴캐슬이 기성용을 좀 더 늦게 보내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박항서, 스즈키컵 ‘베스트팀 감독’

폭스스포츠 선정...베트남 선수 5명 베스트11 뽑히기도



전 연승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결승전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통하는 스즈키컵을 제패

베트남을 10년 만에 스즈키컵 정상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대회 최고 사령탑으로 선정됐다.

박 감독은 18일 폭스스포츠가 뽑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베스트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폭스스포츠는 대회를 빛낸 최고의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으면서, 해당팀 지도자로 박 감독을 선택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박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몰라보게 달라진 베트남 선수들은 강한 체력과 체계적인 전술적 움직임을 자랑하며 연

하면서 박 감독은 국민 영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부임 1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 이어 스즈키컵 우승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내며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베트남 선수들은 베스트 11에 5명이나 포함됐다. 응우옌꽁하이, 응우옌안득 등 이제는 국내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선수를 받았다.

뉴시스



## 광양시 한려대학교 야구부 창단

광양시에 위치한 한려대(총장 류지협)가 최근 대학 분관(봉황관) 8층 대강당에서 선수 및 학부모와 지역체육계 인사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부 창단식을 거행하였다.

한려대는 지난 2016년 9월 교무위원회에서 팀 창단 계획을 승인한 이래 전국 고교 야구부원 가운데 잠재력을 갖춘 우수 선수들을 선발하여 신준식 선수의 15명의 전국 각 지역의 고교 출신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였다.

고교 야구선수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단된 한려대 야구부는

신명건 사회체육과교장을 단장으로 초대감독에는 지역 야구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장준(50) 감독을 선임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전국 대학야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동계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려대는 하키부, 축구부, 탁구부 등을 광양시의 전라남도 대표로 육성하면서 지역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 정현복 광양시장이 보낸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드러나듯이 야구부 창단에 거는 지자체 및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광양=김승호 기자

## 이승우, 팀내 입지 넓힌다...3G 연속 선발

소속팀 헬라스 베로나, 2연승

이탈리아 세리에B 헬라스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가 조금씩 팀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승우는 1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코 안토니오 벤테고디에서 열린 2018~2019 이탈리아 세리에B 페스카리외의 홈 경기에 선발 출격했다.

시즌 초반 기회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이승우는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출장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기간 팀도 2승1무의 상승세를 탔다.

이날 이승우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90분을 소화했다. 전반에 득점 기회를 잡기도 했으나 결실을 맺진 못했다. 베로나는 페스카리외를 3-1로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Honey, Gurgle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담 구레군은 지리산자연, 장세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전-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